

 진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주 임 신 부	정 재 준	사도요한
	보 좌 신 부	정 혁	요셉 (청년부)
		강 인 석	F.하비에르 (유·초·중·고등부)
		박 경 석	보스코 수사 (사회사목)
전 교 수 녀		정 은 자	한나 (원장)
		김 미 리	에블린 (유·초등부)
		정 선 아	세레나 (중·고등부/청년부)
꿀 벌 유치원		최 향 숙	베로니카 수녀
요셉 어린이집		김 아 람	소화데레사 수녀
총 회 장		황 태 영	프란치스코
연 령 회 총 무		옥 윤 필	마티아 010-5117-5564

◎ 경로당 운영 재개

- 대 상 자 : 코로나 1차 예방 접종 후 2주일 지나신 어르신
- 일 시 : 06월 01일부터 / 오후1시~오후5시
- 간식 및 음식 나눔은 없습니다.
- 경로당 이용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합니다.

◎ 알 림

- 6월 9일(수) 저녁 7시 미사는 본당 임원들을 위한 미사로 진행합니다.
- 본당 신자 선종 시,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형제님 010-5117-556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봉성체 신청받습니다.
 - 유아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식 : 토요일 오전 11시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개별 예식)
- 오늘은 청소년 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거리두기 2단계 구역별 주일미사 참례 시간

	토요주일 19:00	새벽 06:30	교중미사 10:30	주일 낮 12:00	주일저녁 19:00
06/06	21~24 기타구역	1~5 구역	6~11 구역	12~15 구역	16~20 구역
06/13	1~5 구역	6~11 구역	12~15 구역	16~20 구역	21~24 기타구역

- 구역 외 신자 분들도 구역별 시간표에 따라 미사에 참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를 코와 턱이 덮이도록 똑바로 착용합니다.
-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으시면 가정에서 평화방송으로 미사 참례합니다.
- “X”로 표시한 자리는 비워두고 앉지 않습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교 육 / 강 좌

- 살레시오와 꿈(CUM) 후원 미사
 - 일 시 : 06월 07일(월), 10시
 - 지도신부 : 심재현 치릴로 신부님

◎ 서울대교구 거주미상 본당 전출

- 2016년 01월 01일 이전 영세자 중 교무금/판공성사/병자성사/봉성체 등의 기록이 세대원 중 한 분도 안계신 302세대가 서울대교구 거주미상 본당으로 전출되었습니다.

*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학생 및 봉사자 모집 *

- 전액 무료, 저녁 식사제공
- 후원금계좌 : 신헌 131-018-937372
(사) 국제청소년지원단

◎ 다음 주일(06/13)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06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05월26일 ~ 06월01일)

• 교 무 금		6,472,000 원
• 주일헌금		5,491,300 원
•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		1,394,000 원
• 감사헌금	박재호 5만원 유OO 5만원 박경희10만원	우순애10만원 이복자10만원 옥윤필 5만원 박양순10만원 이은용20만원 김OO10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 설	복 사		독 서	
06/06	박혜선	심재순	최상림	최승일	권태희
06/13	황원선	오성환	신종구	안상록	정홍자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19:00
06/06	최승일	박승환	박용환	김인기	박용환	박형순
06/13	최창열	박용환	손상민	이계명	박승환	오광운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커뮤니케이션의 환상

42. 역설적이게도 다른 이들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폐쇄적이고 비관용적인 태도는 커지는 반면, 사생활의 권리가 없어질 정도로 그 거리가 줄어들거나 사라집니다. 모든 것은 엿보고 감시할 수 있는 일종의 구경거리가 됩니다. 삶은 끊임없는 통제에 노출됩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모든 것을 보여 주고자 합니다. 그 안에서 모든 개인은 흔히 익명으로 모든 사물과 개인을 들추고 벗기며 폭로하는 관찰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다른 이들에 대한 존중은 무너지고 그렇게 하여 우리는 다른 이들을 목살하고 무시하며 멀리하는 동시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다른 이들의 삶을 속속들이 엿볼 수도 있습니다.

43. 다른 한편으로, 증오와 파괴의 디지털 캠페인은 — 어떤 이들은 그렇게 믿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처럼 — 최고의 상호 부조 형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공동의 적에 대항하는 담합일 뿐입니다. “디지털 매체는 진정한 대인 관계의 발전을 차단하면서 사람들을 종독과 고립의 위험, 그리고 구체적인 현실과의 접촉을 점차 잃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는 몸짓, 얼굴 표정, 침묵, 몸짓 언어가 필요하며, 심지어 체취, 손의 떨림, 홍조, 땀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말이 되고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정, 안정된 상호성, 시간을 두고 무르익는 공감대를 가꾸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디지털 관계는 겉보기에는 사회성을 띠기는 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관계는 정작 ‘우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대개 본모습을 감추고 외국인 혐오와 약자에 대한 멸시로 표현되는 개인주의를 확대시킵니다. 디지털을 통한 연결은 다리를 놓기에 부족하며, 인류를 일치시킬 수도 없습니다.

수치심 없는 공격성

44. 사람들은 소비적이고 안락한 고립을 지키면서도 지속적이고 강박적인 방식의 결속을 선택합니다. 이는 다른 이들에 대한 인신 모독이 될 정도로 이례적인 형태의 공격성, 모욕, 학대, 중상모략, 언어폭력의 소란을 부추깁니다. 대면 접촉에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파괴하고 말 것이기에 이러한 방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 공격성은 모바일 기기와 컴퓨터 안에서 더 할 나위 없는 확산의 자리를 발견합니다.

45. 이는 이념들이 온갖 수치심을 내려놓게 합니다. 겨우 몇 년 전까지 온 세상의 존경을 잃을 각오 없이는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던 것을 오늘날은 일부 정치 인사조차 매우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있고 처벌받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 안에는 막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작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는 은밀하게 침투하여 갖가지 형태의 통제를 실현할 수 있으며 양심과 민주적 절차를 조종하는 기제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정보 통신 기반의 활동 방식은 흔히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도록 돕고 서로 다름을 직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폐쇄적 악순환이 편견과 증오를 조장하며 가짜 뉴스와 그릇된 정보의 유포를 촉진합니다.”

46. 다른 이들을 파괴하도록 유도하는 맹목적 열광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한 종교인들에게서도 발견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종교인 또한 “인터넷과 여러 디지털 소통 공간을 통하여 언어폭력의 관계망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가톨릭 매체 안에서도, 도를 지나친 비방과 폭언이 난무하며 모든 도덕 기준과 타인의 명예에 대한 존중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모두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형제애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